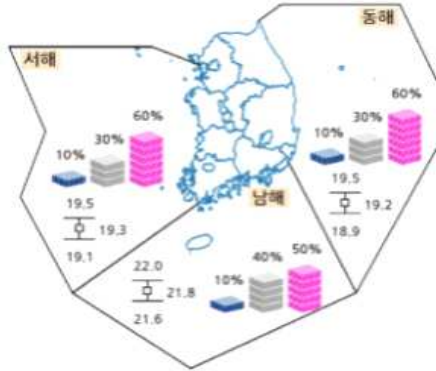


2026년 10월 해양기상기후정보

2026. 10. 2. 발표

● 2026년 10월 해수면 온도 전망(9.23.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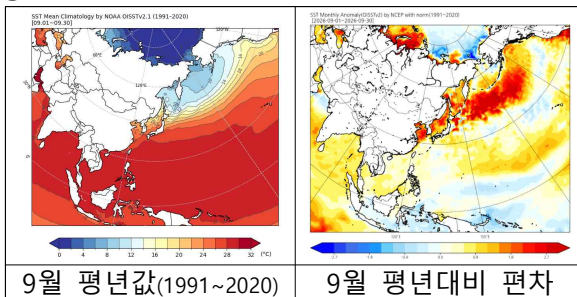


※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확률별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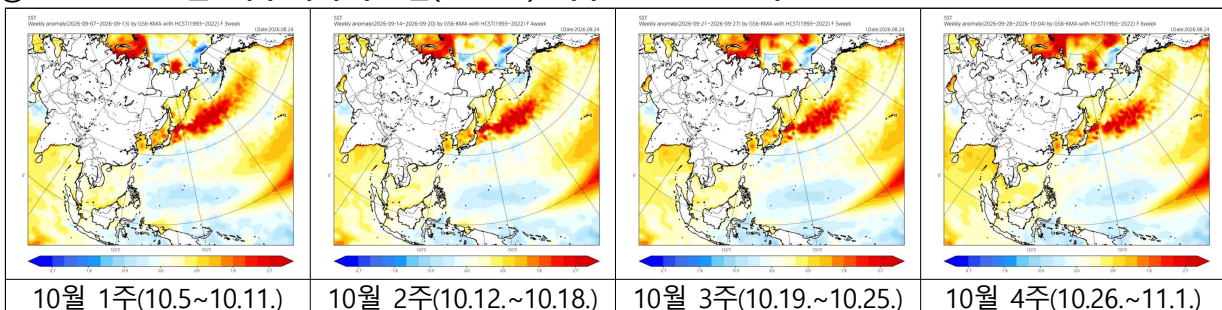
확률 (낮음: 비슷: 높음)	해설
높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20):비슷(40):높음(40))	평년보다 높겠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또는 (낮음(30):비슷(40):높음(30))	평년과 비슷하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낮음(40):비슷(40):높음(20))	평년보다 대체로 낮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낮겠음

● 해수면 온도 현황 및 예측자료

① 2026년 9월 해수면 온도 현황(NOAA OISSTv21)



② 2026년 10월 기후예측시스템(GloSea6) 해수면 온도 편차²⁾



1)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 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2) 편차: 예측값에서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적분기간(1993-2022년) 동안의 평균값을 뺀 값



최고 조위

지점	일자	조위값
인천	10월 27일	925cm
완도	10월 28일	397cm
포항	10월 29일	36cm



안전

해양조난사고 현황

- 10월 해양 사고는 2,328척(11.3%), 42명 (11.9%) 발생(최근 5년간, '21년~'25년).
- 사고유형은 충돌 8.6%(201척) > 침수 5.8%(136척) > 좌초 4.7%(110척) > 화재 2.8%(67척) 순으로 많음
-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38.5%(898척) > 운항안전 부주의 37.7%(879척) > 관리소홀 9.7%(226척) > 배터리방전 3.7%(88척) 등 순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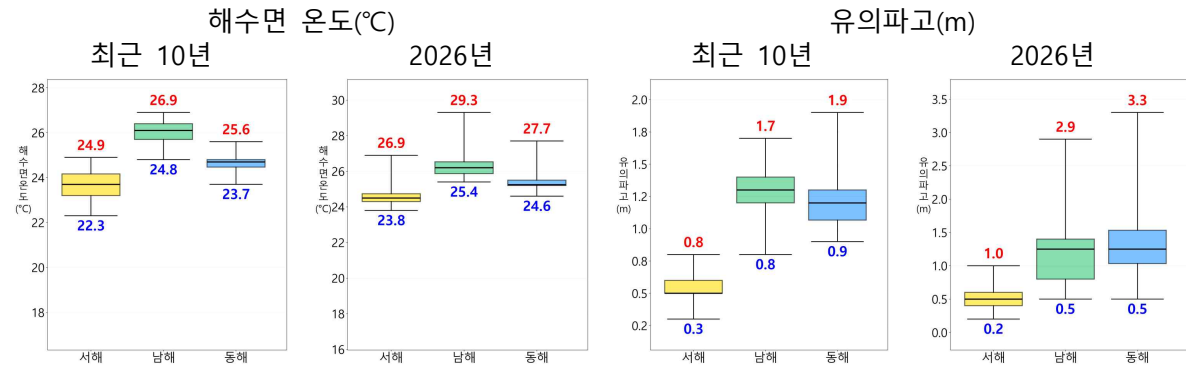
- 조업·정류 중에도 시각·청각·레이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주변 선박의 이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경계 필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여 항법을 준수한 조기 피항 조치 필요



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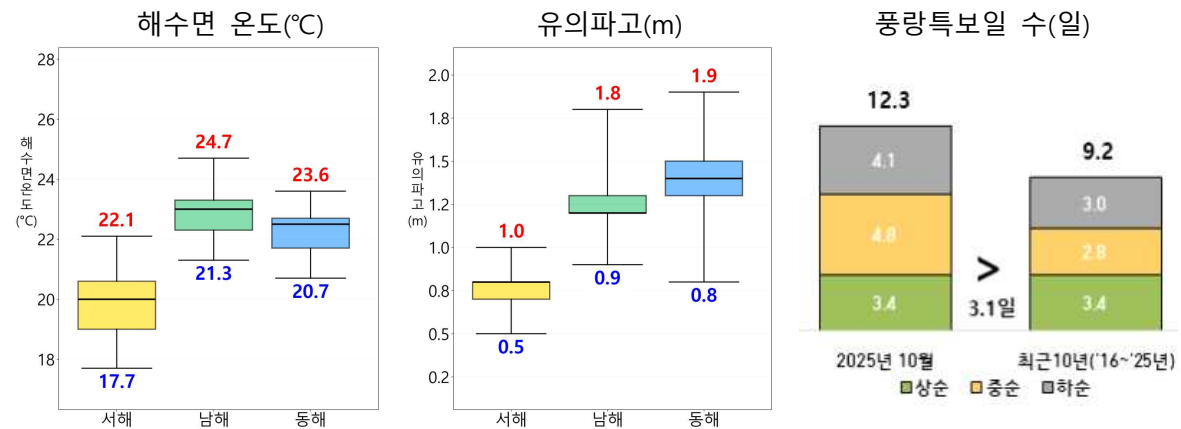
- 고등어 전·평년 대비 양호, 전갱이, 살오징어, 참조기는 전년 대비 양호,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멸치, 갈치, 삼치는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분석(최근 10년('16~'25년) 및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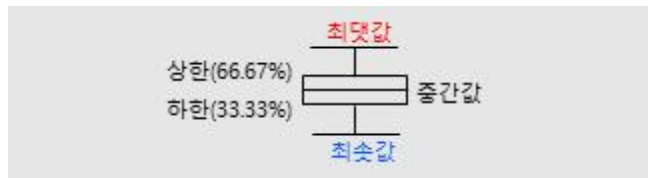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최근 10년			2026년 9월			최근 10년			2026년 9월		
해역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23.6	25.9	24.6	24.8	26.5	25.6	0.5	1.3	1.2	0.5	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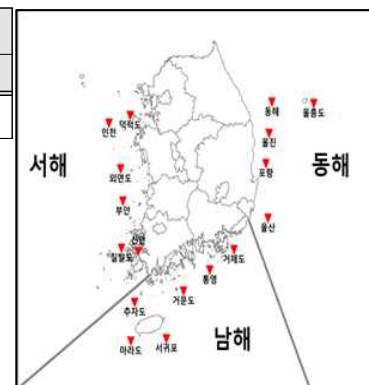
● 10월 해양기후 특성(최근 10년('16~'25년))



	해수면 온도(°C)			유의파고(m)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평균값	19.9	23.0	22.2	0.8	1.2	1.4



* 박스범위는 33.33%~66.67%에 해당하는 값으로,
국가승인통계 지정 해양기상부이 17개소를 활용함



[해양기상부이 지정 위치]

자료 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기상기후정보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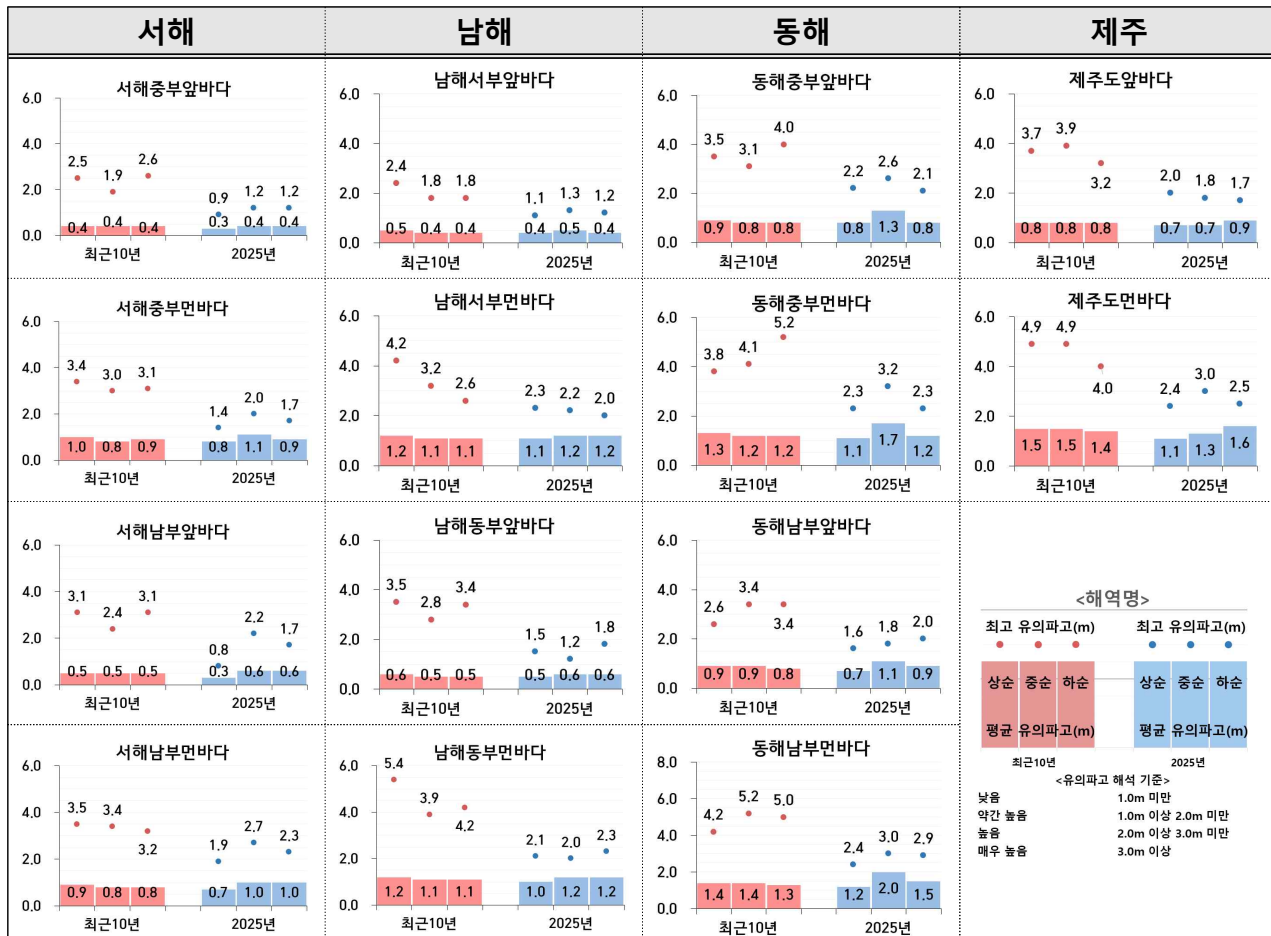
10월 해역별 및 순별 평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서 해	0.5m (▲ 0.1m)	0.9m (▲ 0.2m)
남 해	0.6m (■ 0.0m)	1.1m (▼ 0.1m)
동 해	0.9m (▲ 0.1m)	1.3m (▲ 0.1m)
제주도	0.8m (■ 0.0m)	1.5m (■ 0.0m)

▲ 전월대비 높음, ▼ 전월대비 낮음, ■ 전월과 비슷

해역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5	0.5	0.5	1.0	0.8	0.9
남 해	0.6	0.5	0.5	1.2	1.1	1.1
동 해	0.9	0.9	0.8	1.4	1.3	1.3
제주도	0.8	0.8	0.8	1.5	1.5	1.4

10월 평균 및 최고 유의파고(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 관측 이래 10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해	부안	'22.10.10.	3.5 (4.3)	외연도	'22.10.10.	3.4 (4.4)	인천	'22.10.10.	3.4 (3.9)
남해	통영	'18.10.6.	5.4 (9.9)	거문도	'18.10.6.	4.2 (9.2)	거제도	'17.10.22.	4.2 (6.6)
동해	울산	'19.10.12.	5.2 (6.8)	울릉도	'17.10.23.	5.2 (6.4)	울산	'17.10.23.	5.0 (7.2)
제주도	서귀포	'20.10.8.	4.9 (6.3)	서귀포	'24.10.20.	4.9 (5.9)	마라도	'18.10.6.	4.8 (8.2)

■ 10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 최근 10년간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83.0%, 2m 이상이 2.3%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 1m 미만이 47.7%, 2m 이상이 12.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앞바다에서 1m 미만이 81.8%, 2m 이상이 0.9%로 나타났고, 먼바다에서는 1m 미만이 40.9%, 2m 이상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 2m 이상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은 최근 10년간의 경우 제주도 먼바다(21.1%)였고, 지난해의 경우 동해남부 먼바다(29.0%)였습니다.

해역	앞바다		먼바다	
	1m 미만	2m 이상	1m 미만	2m 이상
서해	90.9%	0.8%	68.4%	7.1%
남해	89.9%	1.3%	46.8%	9.2%
동해	66.8%	5.2%	38.5%	16.7%
제주도	72.9%	3.7%	24.9%	21.1%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10월 평균 유의파고 분포(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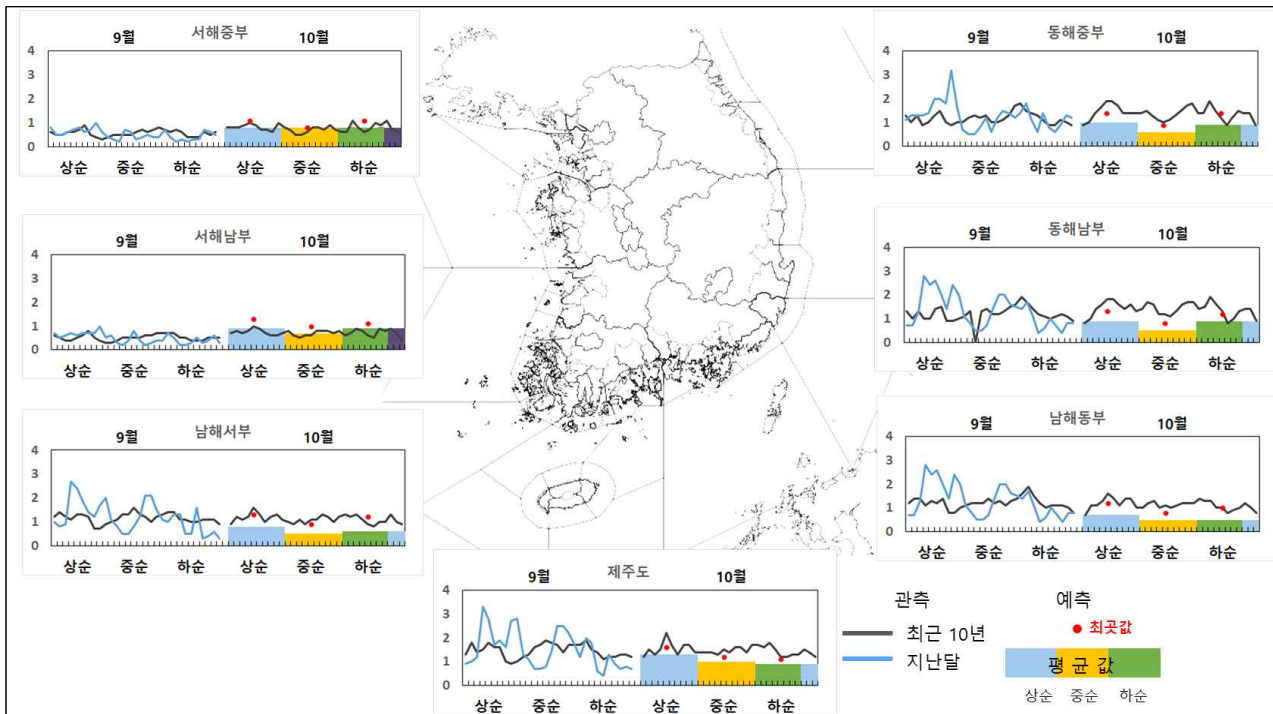
해역	앞바다	먼바다	지점
전해상	최근 10년: 1m 미만 83.0%, 2m 이상 2.3% 지난해: 1m 미만 81.8%, 2m 이상 0.9%	최근 10년: 1m 미만 47.7%, 2m 이상 12.6% 지난해: 1m 미만 40.9%, 2m 이상 14.8%	
서해중부	최근 10년: 1m 미만 93.4%, 2m 이상 3.6% 지난해: 1m 미만 96.4%, 2m 이상 0.0%	최근 10년: 1m 미만 66.9%, 2m 이상 6.0% 지난해: 1m 미만 62.5%, 2m 이상 3.1%	

해역	앞바다	먼바다	지점
서해남부	최근 10년간: <1.0m (87.1%), 1.0~1.9m (11.4%), 2.0~2.9m (1.4%), 3.0~4.9m (0.1%), 5.0m≤ (0.0%) 2025년: <1.0m (87.8%), 1.0~1.9m (11.6%), 2.0~2.9m (0.6%),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69.4%), 1.0~1.9m (23.3%), 2.0~2.9m (6.5%), 3.0~4.9m (0.8%), 5.0m≤ (0.0%) 2025년: <1.0m (64.4%), 1.0~1.9m (26.4%), 2.0~2.9m (9.2%), 3.0~4.9m (0.0%), 5.0m≤ (0.0%)	
남해서부	최근 10년간: <1.0m (94.0%), 1.0~1.9m (5.8%), 2.0~2.9m (0.2%), 3.0~4.9m (0.0%), 5.0m≤ (0.0%) 2025년: <1.0m (94.6%), 1.0~1.9m (5.4%), 2.0~2.9m (0.0%),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46.4%), 1.0~1.9m (44.7%), 2.0~2.9m (7.7%), 3.0~4.9m (1.2%), 5.0m≤ (0.0%) 2025년: <1.0m (40.3%), 1.0~1.9m (53.2%), 2.0~2.9m (6.5%), 3.0~4.9m (0.0%), 5.0m≤ (0.0%)	
남해동부	최근 10년간: <1.0m (87.3%), 1.0~1.9m (10.7%), 2.0~2.9m (1.8%), 3.0~4.9m (0.2%), 5.0m≤ (0.0%) 2025년: <1.0m (86.0%), 1.0~1.9m (14.0%), 2.0~2.9m (0.0%),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47.3%), 1.0~1.9m (43.3%), 2.0~2.9m (7.6%), 3.0~4.9m (1.7%), 5.0m≤ (0.2%) 2025년: <1.0m (38.7%), 1.0~1.9m (53.2%), 2.0~2.9m (8.1%), 3.0~4.9m (0.0%), 5.0m≤ (0.0%)	
동해남부	최근 10년간: <1.0m (63.7%), 1.0~1.9m (31.8%), 2.0~2.9m (3.8%), 3.0~4.9m (0.7%), 5.0m≤ (0.0%) 2025년: <1.0m (60.2%), 1.0~1.9m (38.7%), 2.0~2.9m (1.1%),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32.3%), 1.0~1.9m (48.3%), 2.0~2.9m (13.8%), 3.0~4.9m (5.4%), 5.0m≤ (0.2%) 2025년: <1.0m (22.6%), 1.0~1.9m (48.4%), 2.0~2.9m (27.4%), 3.0~4.9m (1.6%), 5.0m≤ (0.0%)	
동해중부	최근 10년간: <1.0m (68.3%), 1.0~1.9m (26.2%), 2.0~2.9m (5.1%), 3.0~4.9m (0.4%), 5.0m≤ (0.0%) 2025년: <1.0m (53.8%), 1.0~1.9m (41.4%), 2.0~2.9m (4.8%),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44.3%), 1.0~1.9m (41.5%), 2.0~2.9m (10.9%), 3.0~4.9m (3.2%), 5.0m≤ (0.1%) 2025년: <1.0m (32.3%), 1.0~1.9m (44.1%), 2.0~2.9m (21.5%), 3.0~4.9m (2.2%), 5.0m≤ (0.0%)	
제주도	최근 10년간: <1.0m (72.9%), 1.0~1.9m (23.4%), 2.0~2.9m (3.0%), 3.0~4.9m (0.7%), 5.0m≤ (0.0%) 2025년: <1.0m (77.0%), 1.0~1.9m (22.4%), 2.0~2.9m (0.6%), 3.0~4.9m (0.0%), 5.0m≤ (0.0%)	최근 10년간: <1.0m (24.9%), 1.0~1.9m (54.1%), 2.0~2.9m (16.0%), 3.0~4.9m (5.1%), 5.0m≤ (0.0%) 2025년: <1.0m (30.6%), 1.0~1.9m (53.2%), 2.0~2.9m (14.5%), 3.0~4.9m (1.6%), 5.0m≤ (0.0%)	
최근 10년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2025년 <1.0m 1.0 ~ 1.9m 2.0 ~ 2.9m 3.0 ~ 4.9m 5.0m≤			● 앞바다 ● 먼바다

해역	앞바다	먼바다
서해중부	신진도, 삽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천수만, 안면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대치마도, 비안도	칠발도, 맹골수도, 부안
남해서부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대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 독도, 울릉도
동해남부	후포, 간절곶, 월포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마라도, 서귀포

[참고] 유의파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유의파고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9월 관측과 10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9월(1일~30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을 사용함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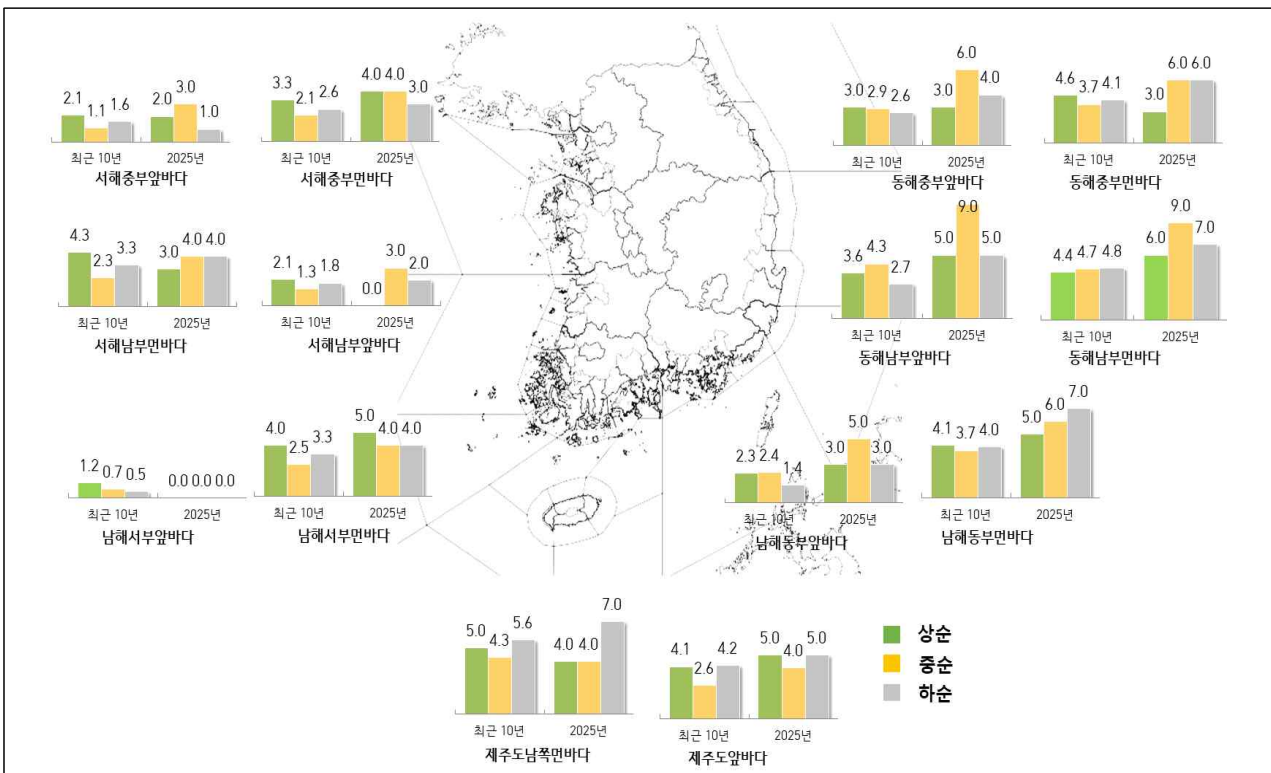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참고] 통계 지점: 해양기상부이 지점

풍랑특보일 수

10월 풍랑특보일 수(최근 10년('16~'25년) 및 지난해('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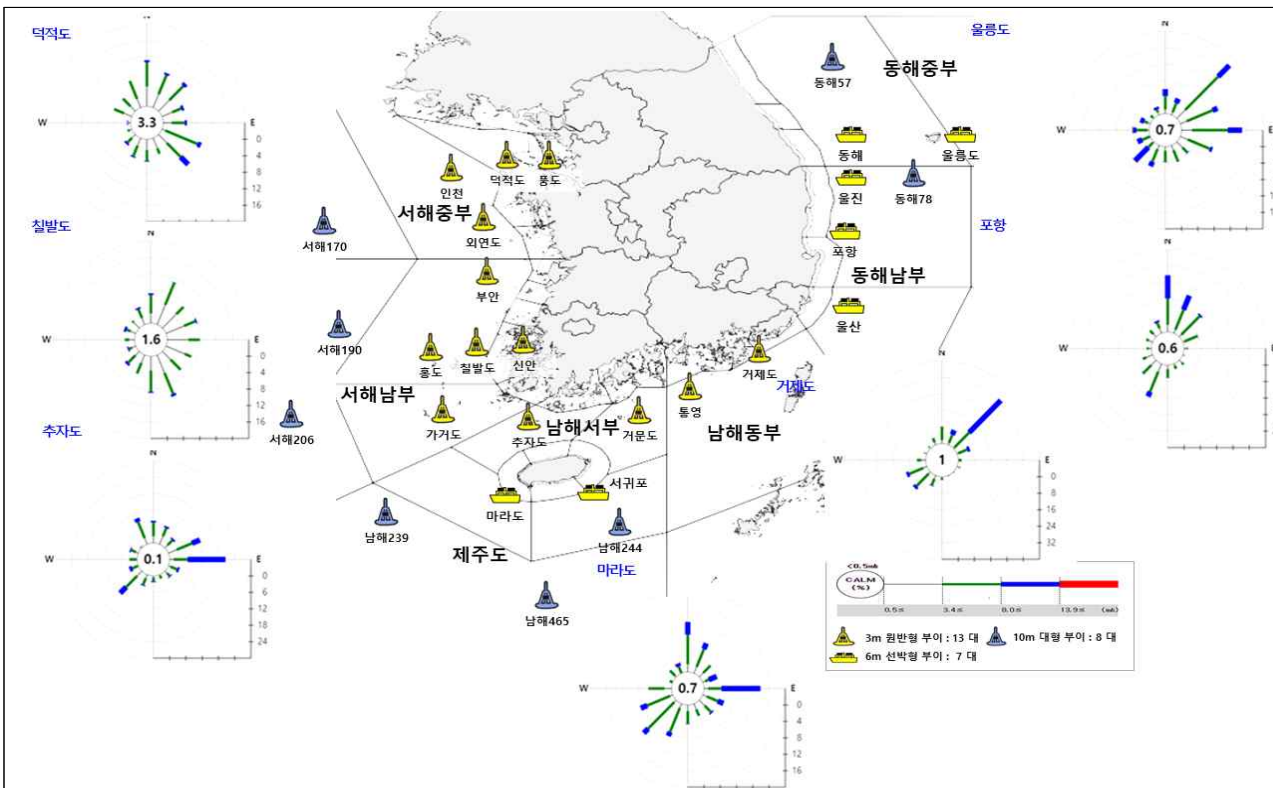
- 10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10월 평균 9.2일로 전월 대비 1.9일 많았고, 지난해에는 12.3일로 전월 대비 6.5일 많았습니다.
- 10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최근 10년간 (상순) 3.4일, (중순) 2.8일, (하순) 3.0일 지난해에는 (상순) 3.4일, (중순) 4.8일, (하순) 4.1일로 나타났습니다.
- 10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최근 10년) 제주도남쪽먼바다가 14.9일로 가장 많았고,
남해서부앞바다가 2.4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 난 해) 동해남부먼바다가 22.0일로 가장 많았고,
남해서부앞바다가 0.0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해상풍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지난해('25년))

- 서해중부와 서해남부해상, 제주도는 북풍 계열, 남해와 동해중부해상은 북동풍 계열, 동해남부해상은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습니다.
- 전 해상 풍속은 3.4m/s 미만이 14.5%, 3.4~7.9m/s가 51.1%, 8.0m/s 이상이 34.5%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 풍속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서해중부가 24.3%로 가장 많았습니다.
 (8.0m/s 이상) 제주도가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25년) 10월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N	1.6	22.8	55.4	19.3	0.9
서해남부	N	0.9	20.6	48.3	28.2	2.0
남해서부	ENE	0.4	9.1	49.1	41.0	0.5
남해동부	NE	0.2	9.7	51.0	39.2	0.0
동해중부	ENE	0.4	11.5	53.3	34.0	0.8
동해남부	NW	0.3	12.5	59.2	27.6	0.5
제주도	N	0.6	11.0	41.3	45.9	1.3
전 해상		0.6	13.9	51.1	33.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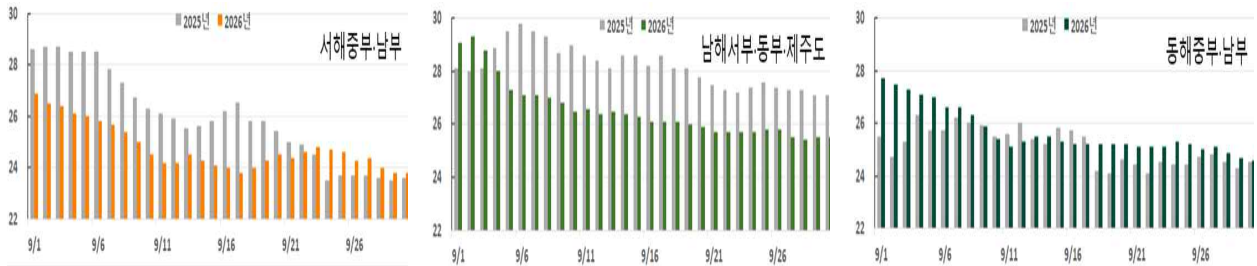
☞ 지난해('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해수면 온도

9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기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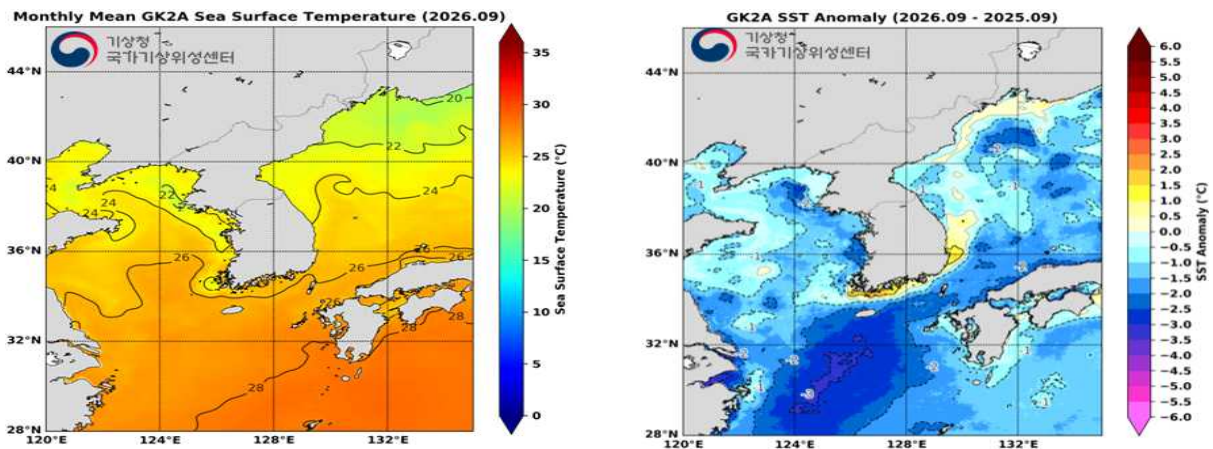
- (주요 기후특성) 올해 9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5.6℃로 작년보다 0.8℃ 낮았으나, 최근 10년 평균보다 0.7℃ 높았음

※ 국가승인통계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지점 중 10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17개 지점 활용



< 해역별 2025년·2026년 9월 일평균 해수면 온도 시계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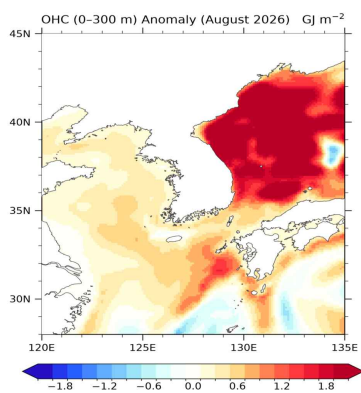
- 9월 해수면 온도 분포(기상청 천리안위성 2A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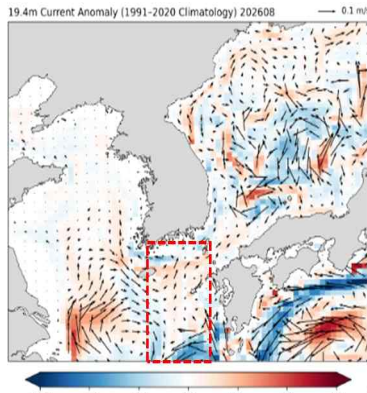
< 2026년 9월 평균 해수면 온도(좌), 및 전년 대비 편차 분포도(우) >

- 8월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 열용량*(0~300m)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이 약해지고, 9월부터 상층 찬 기압골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차차 낮아짐

* 일정 수심 범위의 바닷물이 저장하고 있는 열의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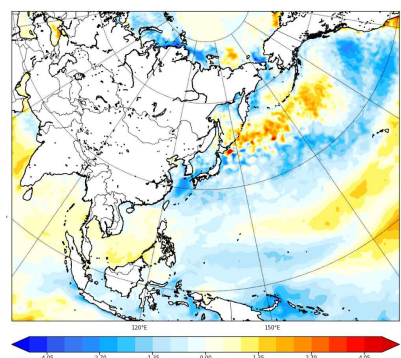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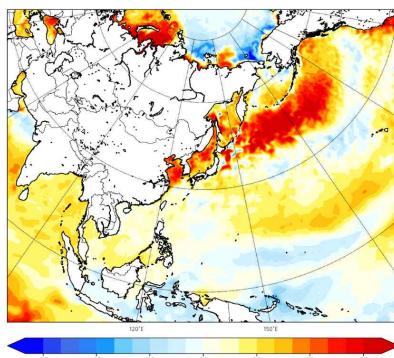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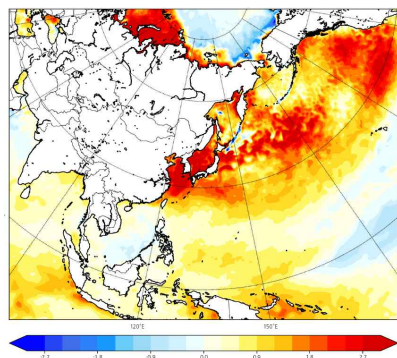
< 2026년 8월 열용량(0~300m) 평년 편차 분포도 >



< 2026년 8월 해류(수심 약 20m) 평년 편차 분포도 >



< 2026년 9월 기온 관련 모식도 >



< 평년(1991~2020년) 대비 2025년(좌)·2026년(중) 9월 해수면 온도 편차 및 2025년 대비 2026년 편차 분포도(우) >

※ 출처: NOAA OISSTv2

※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 평년(1991~2020) 대비 편차(미국 해양대기청(NOAA) OISSTv2 활용): 서해(중·남부) 24.8°C(+2.0°C), 남해(서·동부·제주도) 25.1°C(+0.9°C), 동해(중·남부) 23.0°C(+1.3°C)

9월 상세해역 순별 평균 해수면 온도

해역 ³⁾	9월 해수면 온도(°C)					
	상 순		중 순		하 순	
	최근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최근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최근10년 평균 대비 편차	작년 대비 편차
서해중부	26.0 ▲0.9	▼2.1	24.3 ▲0.2	▼2.4	24.5 ▲1.5	▼0.6
서해남부	25.7 ▲1.0	▼2.1	24.0 ▲0.5	▼1.0	24.1 ▲1.4	▲0.8
동해중부	26.4 ▲1.3	▲0.5	25.0 ▲0.3	▲0.2	24.8 ▲1.1	▲1.0
동해남부	26.9 ▲1.5	▲1.3	25.4 ▲0.4	▼0.1	25.2 ▲0.9	▲0.3
남해서부	27.5 ▲1.2	▼1.1	26.4 ▲0.6	▼1.6	25.7 ▲0.9	▼1.3
남해동부	27.5 ▲1.1	▼0.3	26.2 ▲0.6	▼0.8	25.5 ▲0.7	▼0.5
제주도	28.1 ▲0.2	▼2.2	26.1 ▼1.1	▼3.8	25.8 ▼0.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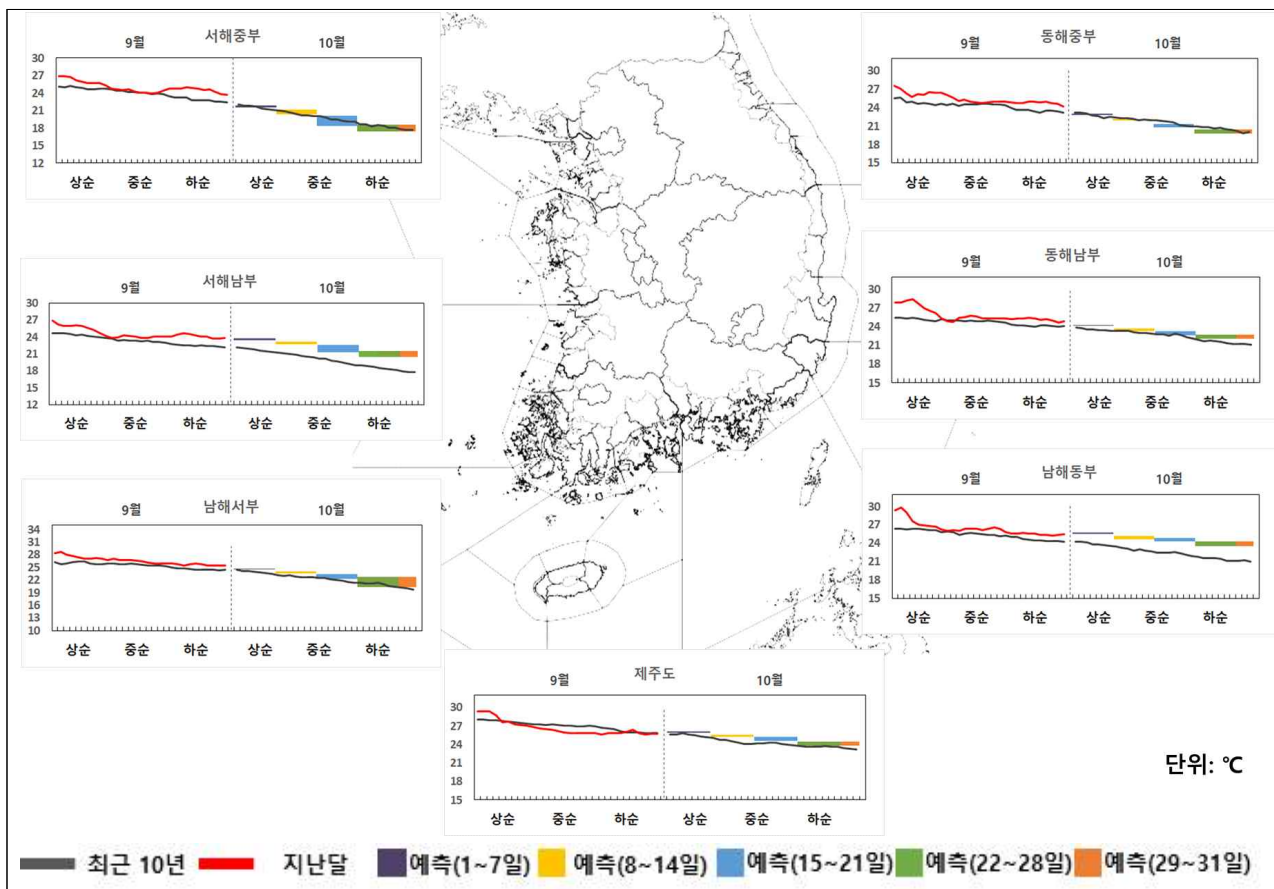
▲ 최근 10년(17~26년) 대비 높음, ▼ 최근 10년(17~26년) 대비 낮음, ■ 최근 10년(17~26년)과 비슷

10월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최근 10년('16~'25년))

해역	해수면 온도(°C)
서해중부	19.8(▼4.1)
서해남부	20.0(▼3.4)
동해중부	21.6(▼2.7)
동해남부	22.6(▼2.2)
남해서부	22.2(▼3.2)
남해동부	22.5(▼2.9)
제주도	24.5(▼2.5)

▲ 전월(최근 10년)대비 높음, ▼ 전월(최근 10년) 대비 낮음, ■ 전월(최근 10년)과 비슷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6~'25년) 및 '26년 9월 관측과 10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정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6~'25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6년 9월(1일~30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인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부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10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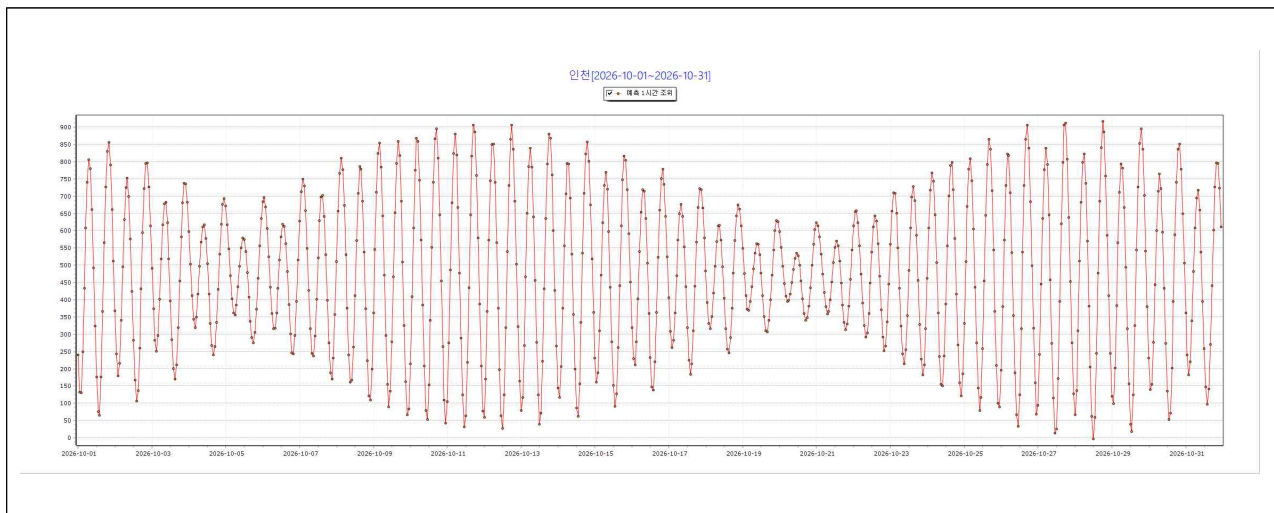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10월 27일에 925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10월 28일에 397cm, 동해안의 포항은 10월 29일에 3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10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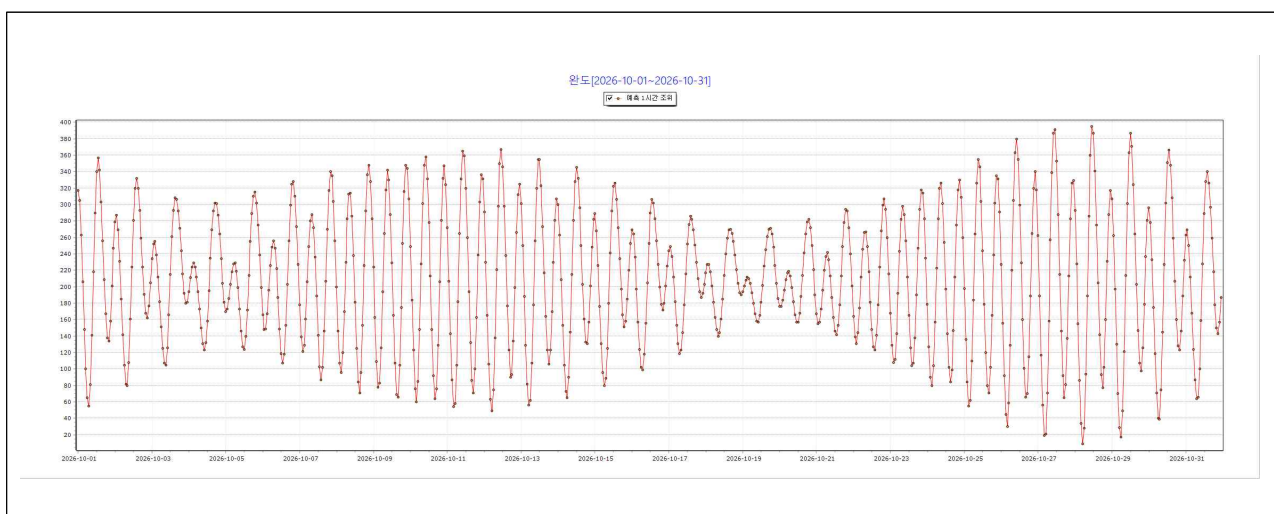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삭, 9.11.~14.)		대조기(망, 9.27.~30.)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10.11 17:20	913	10.27 17:33	925
	안흥	10.12 16:54	675	10.28 17:09	708
	군산	10.12 16:13	707	10.28 16:29	725
	목포	10.12 15:23	474	10.28 15:48	492
남해안	제주	10.11 11:00 10.12 11:36	276	10.28 11:56	300
	완도	10.11 10:21 10.12 10:55	367	10.28 11:17	397
	마산	10.11 09:11	193	10.27 09:25 10.28 10:05	205
	부산	10.11 08:38	132	10.27 08:51	138
동해안	포항	10.14 04:30	33	10.29 03:54	36
	속초	10.13 03:38 10.14 04:04	33	10.29 03:44	34
	울릉도	10.14 03:33	29	10.29 03:13	30

☞ 202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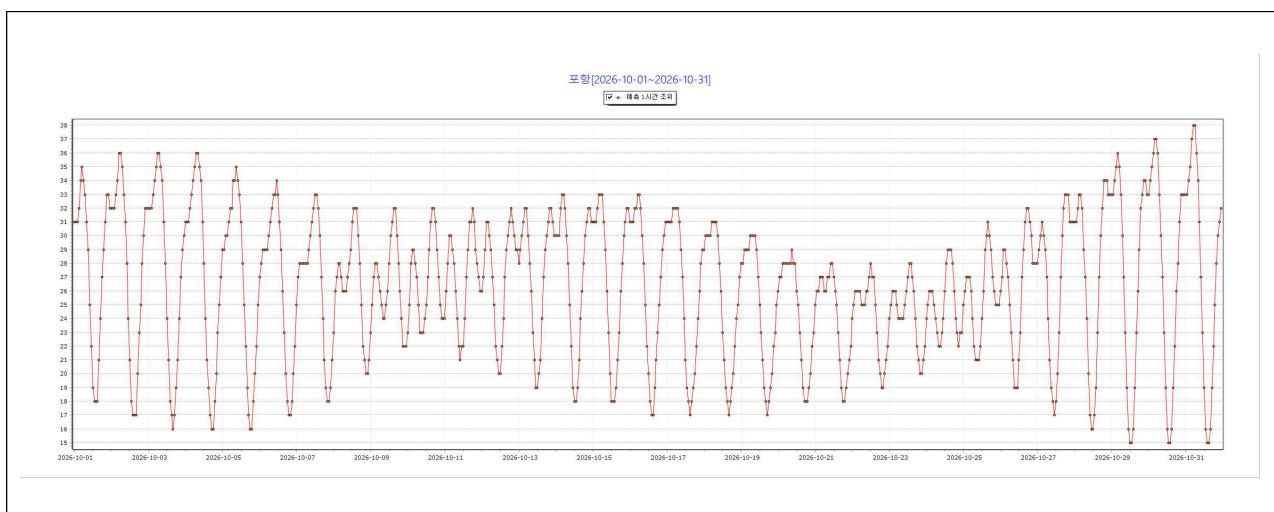
○ 10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26년 10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10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26년 10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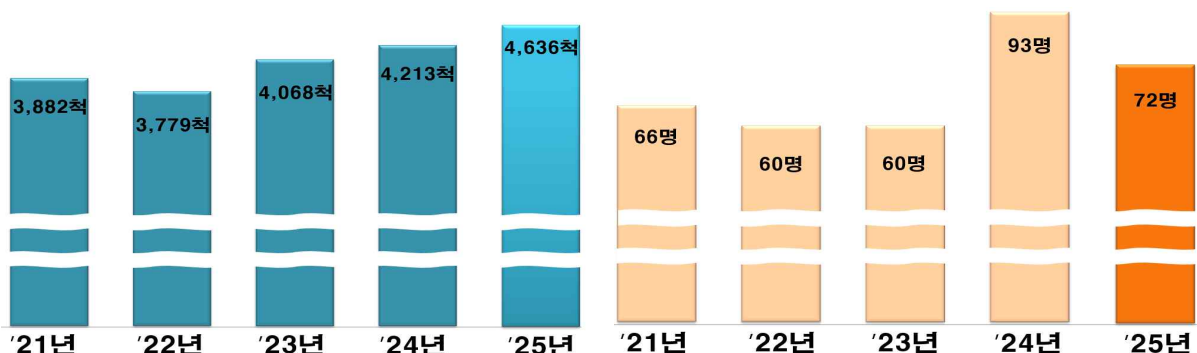
○ 해상조난사고 현황(10월)

- **(총괄)** 최근 5년간 20,578척의 선박사고와 3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10월에는 2,328척(11.3%), 42명(11.9%)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55.7%(어선 1,030척낚시 267척) > 레저선박 29.6%(691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5.7%(133척) > 예부선 4.6%(108척) 등 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4.7%(1,740척)*를 제외, 6대사고 중 충돌 8.6%(201척) > 침수 5.8%(136척) > 좌초 4.7%(110척) > 화재 2.8%(67척) 등 순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38.5%(898척) > 운항·안전부주의 37.7%(879척) > 관리소홀 9.7%(226척) > 배터리방전 3.7%(88척) 등 순 발생

○ 해상조난사고 통계('21년~'25년)

- 최근 5년간 20,578척(연평균 4,115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13,178명 중 351명(사망 250명, 실종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20,578	113,178	20,191	112,827	351	250	101
2025년	4,636	26,466	4,558	26,394	72	52	20
2024년	4,213	23,840	4,155	23,747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평균	4,115	22,635	4,038	22,565	70	50	20



< 사고발생 현황(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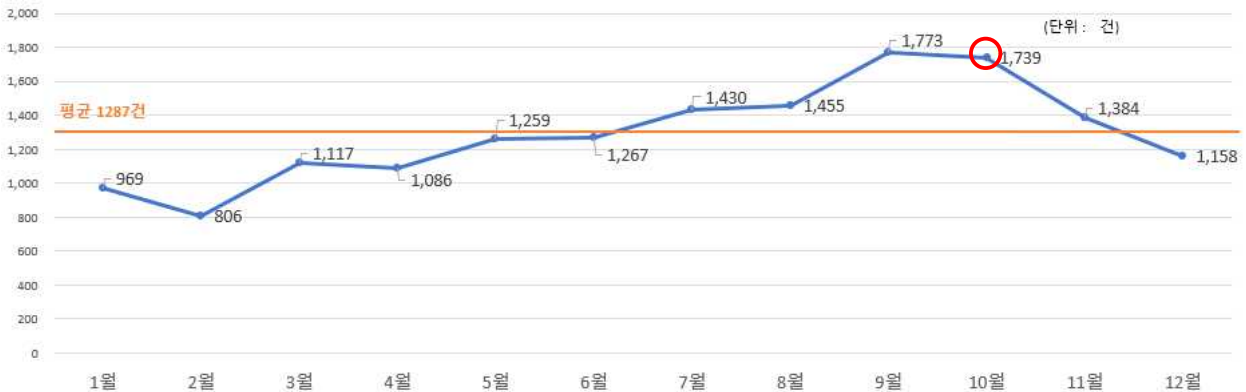
< 인명피해 현황(명) >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2021~2025) 10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10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1,739건 발생



- (사고 유형) 주요사고*는 충돌 143건(8.2%), 안전사고 90건(5.2%), 화재·폭발 64건(3.7%), 전복 53건(3.0%), 침몰 26건(1.5%) 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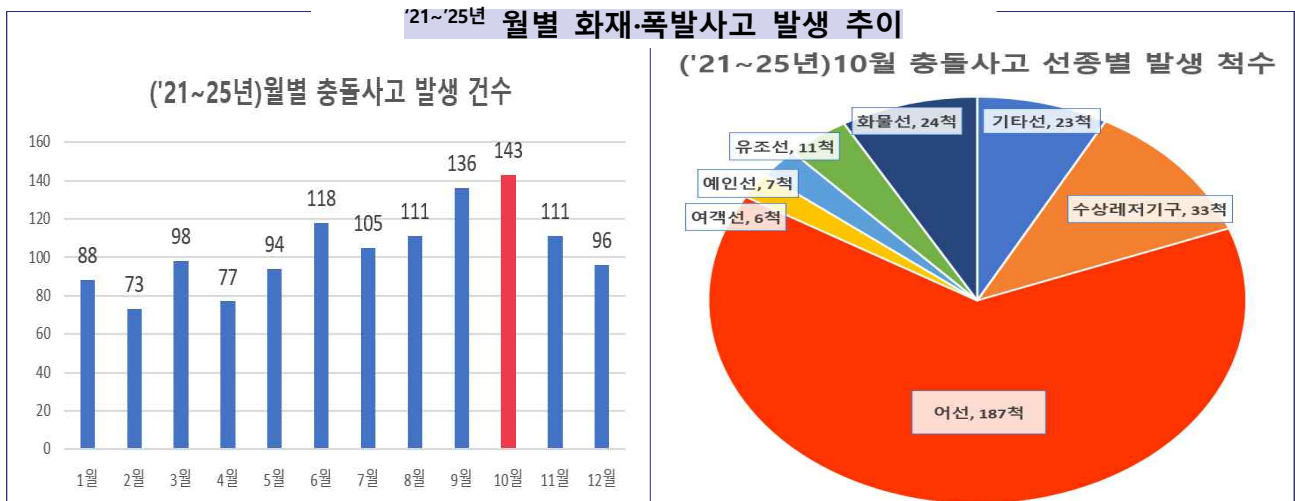
* 주요 해양사고는 물적·인적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560건(32.2%), 부유물감김 225건(12.9%), 침수 123건(7.1%), 좌초 94건(5.4%) 등

○ (사고 현황) 10월에는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250건 중 11.4%)하고, 충돌로 인한 연평균 사망·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155명 발생

- (선종별) 10월 충돌사고 발생 선박은 총 291척으로 어선 187척(64.3%), 비어선* 71척(24.4%) 수상레저기구 33척(11.3%) 순 발생

* 화물선 24척(8.3%), 기타선 23척(7.9%), 유조선 11척(3.8%), 예인선 7척(2.4%), 여객선 6척(2.1%)



□ 10월 주요사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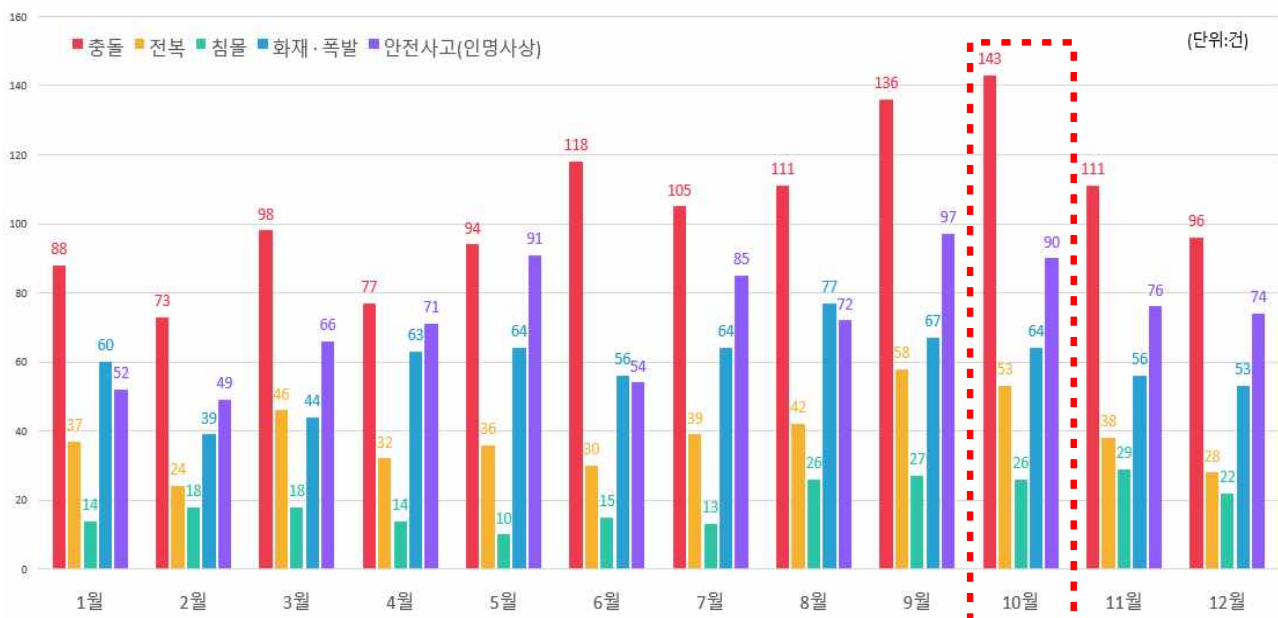
- 본격적 성어를 맞아 빈번한 어선 입출항 등으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므로 입출항 항로 및 조업 밀집 해역 운항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해양사고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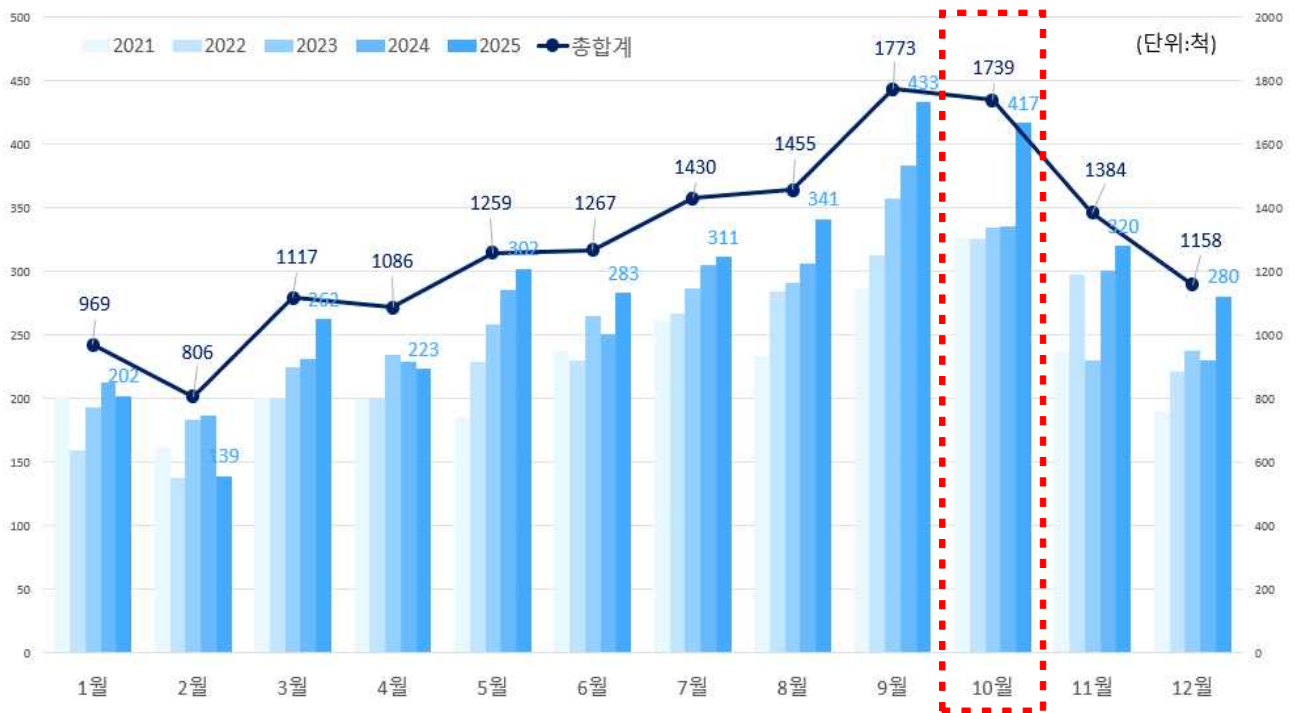
- (발생 원인) 선박 운항자의 경계 소홀, 항행법규 위반, 조선 부적절 등 운항과실에 의하여 주로 발생
 - (경계 소홀) 조업·낚시 중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거나 항해 중 상대선의 침로·속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
 - 조업·정류 중에도 시각·청각·레이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주변 선박의 이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경계 필요
 - (항행법규 위반) 상대가 피해 갈 것이라는 예단으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법(좌현대좌현, 피항선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여 항법을 준수한 조기 피항 조치 필요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21~2025)

-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 월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어황정보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0월 어황정보

○ 연근해 어업생산동향(표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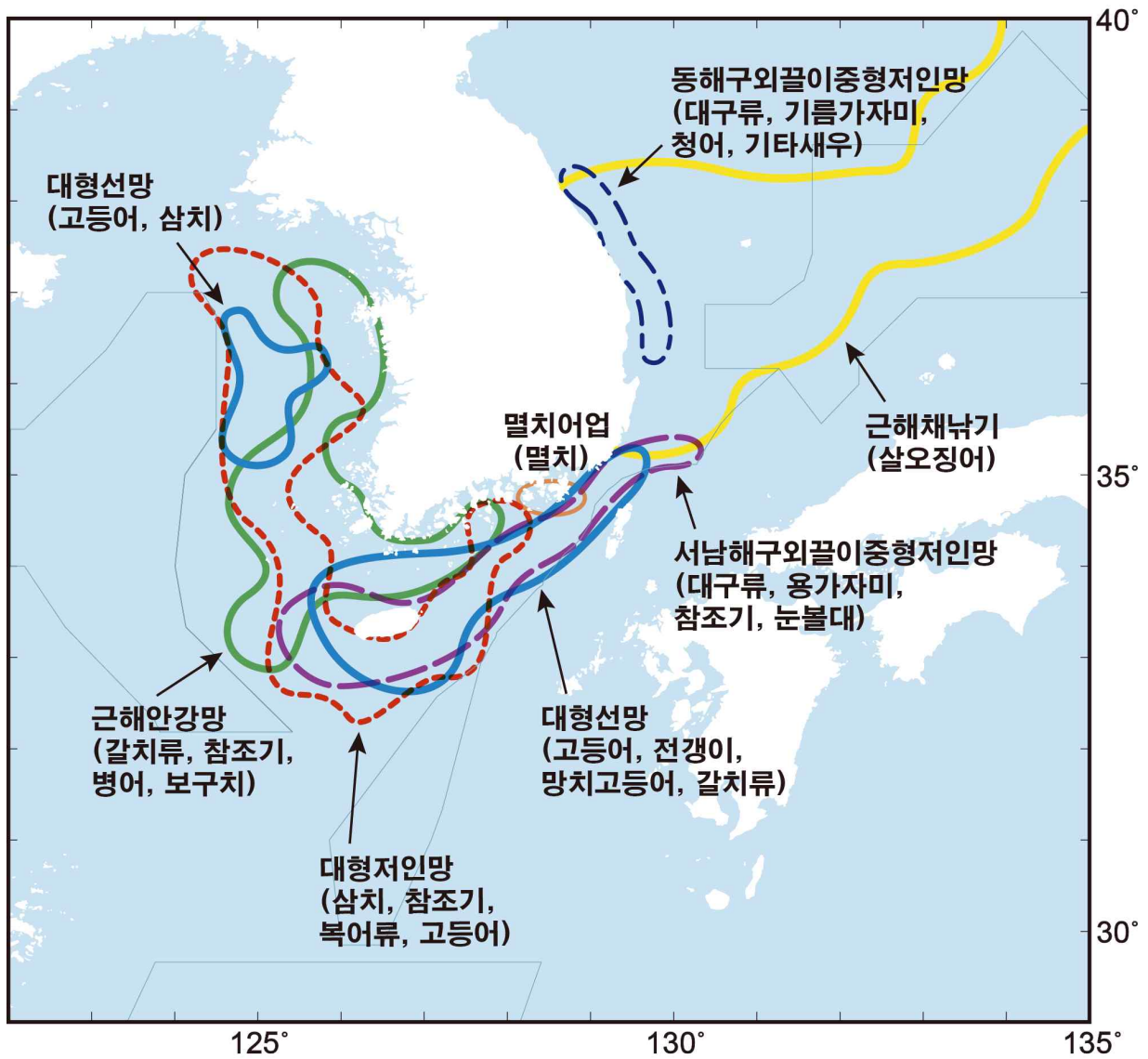
- 9월(기간: '26.8.23.~'26.9.19.)의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살오징어, 멸치는 평년(최근 5년 평균)대비 증가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갈치, 참조기, 삼치는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10월 주요 어망별 어황 전망

- **대형선망:**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망치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근해채낚기:**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해역에서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하겠으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선권현망:**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멸치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멸치 전체 어황은 부진이 예상되나,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황은 전·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근해안강망:**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갈치, 참조기,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갈치의 부진과 참조기의 전년 대비 양호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황은 전년 수준이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서해 중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에서 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 **외끌이대형저인망:**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 참조기 등을 어획하겠다.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제주도 남부 먼바다 해역에서 대구류, 용가자미, 참조기 등을 어획하겠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에서 대구류, 기름가자미, 청어, 새우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 **전체 저인망어업의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하고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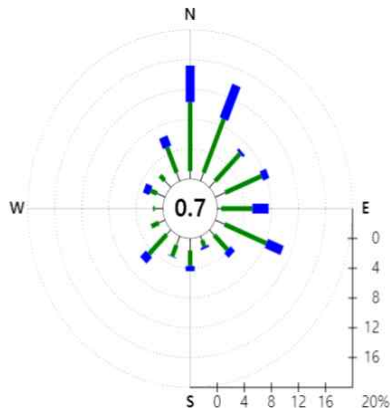
고 등 어	제주도 남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양호할것으로 전망된다.
전 갯 이	제주도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남해 서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하겠으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동해 남부와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동해 중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근해채낚기어업을 중심으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하겠으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거제도와 남해군 앞바다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기선권현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남부 먼바다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근해안강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자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제주도 남부 먼바다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근해자망어업을 중심으로 근해안강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에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년 대비 양호하겠으나,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서해 중부를 중심으로 서해 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조업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어황은 전·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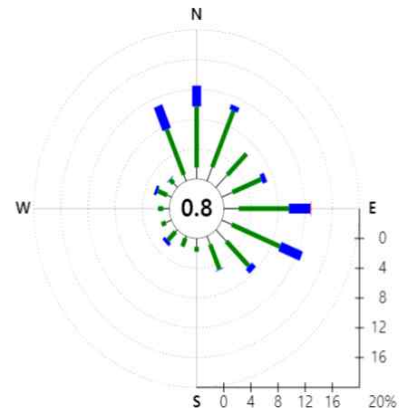
< 2026년 10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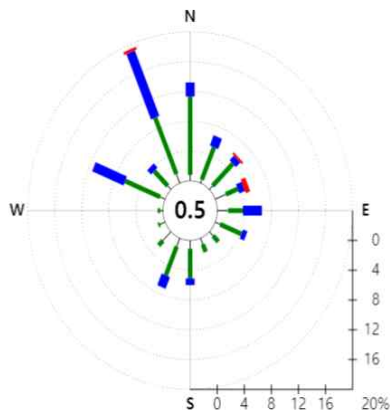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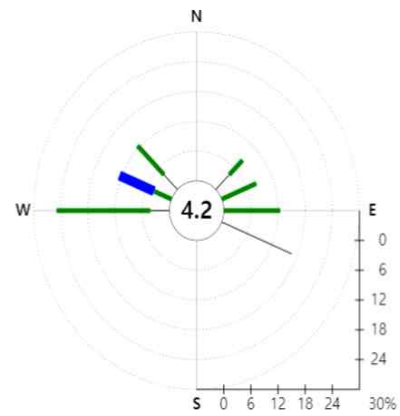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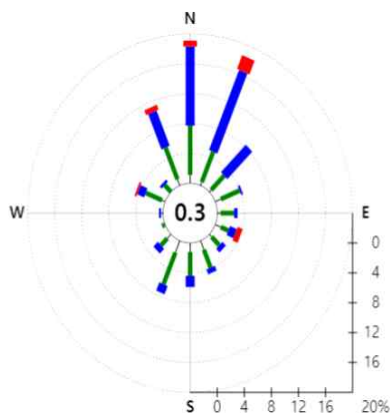
풍도(서해중부앞바다)



인천(서해중부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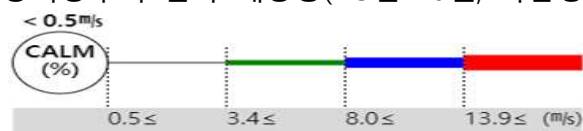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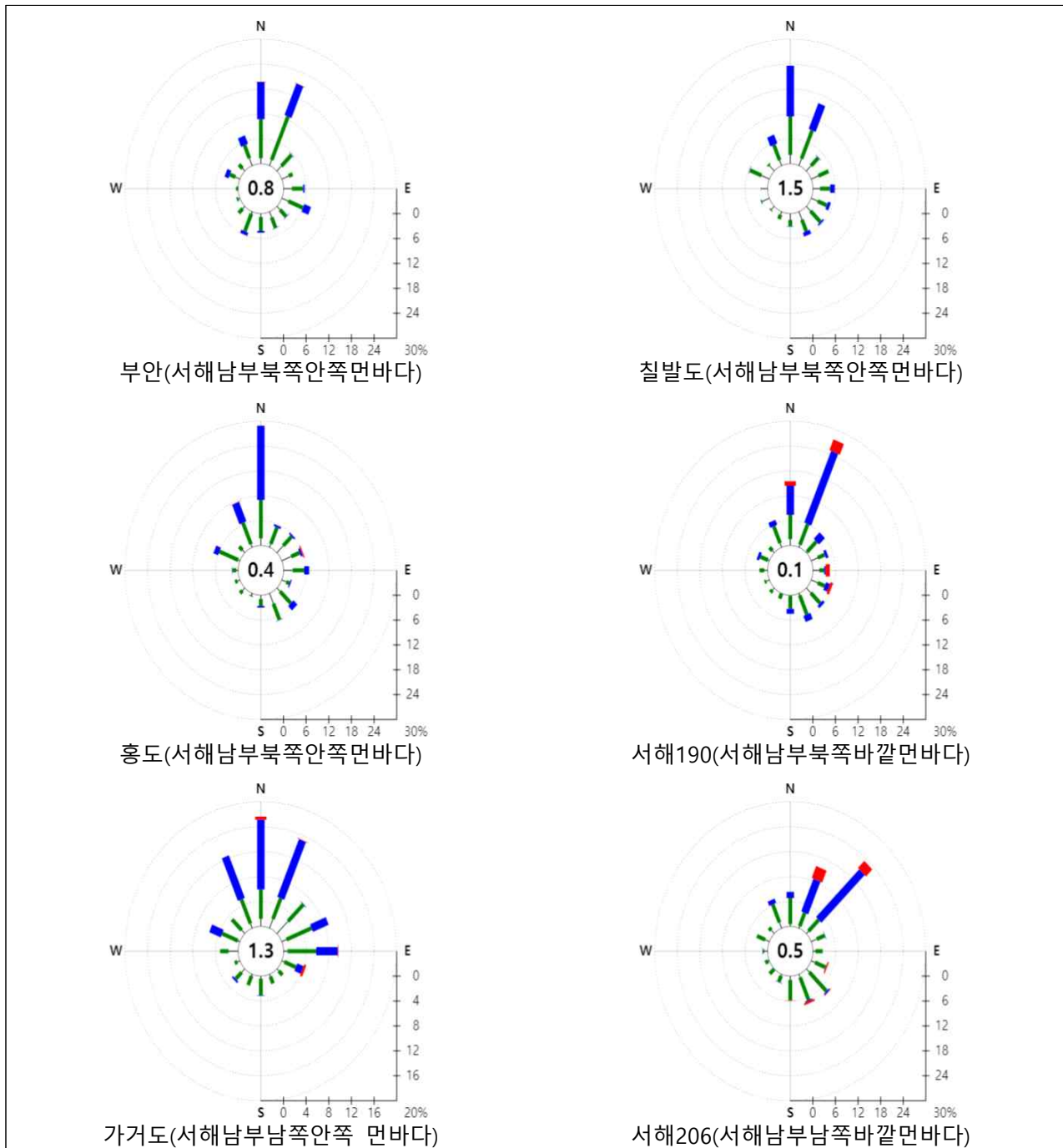


서해170(서해중부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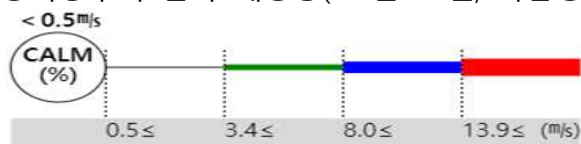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0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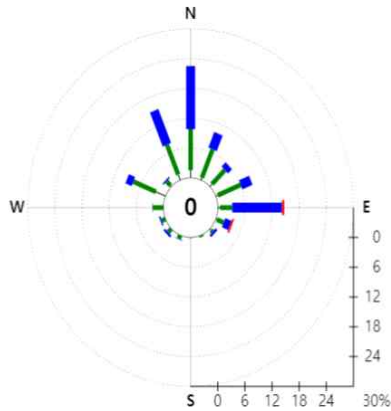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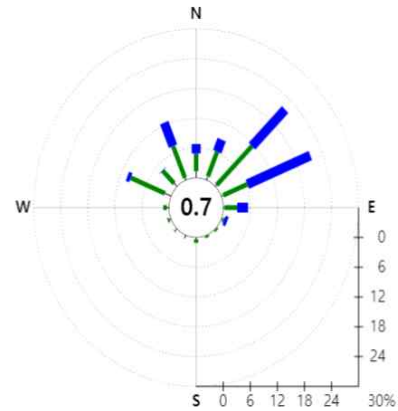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0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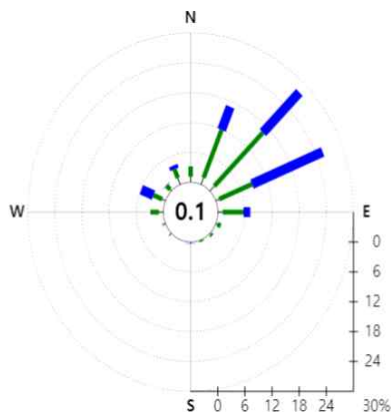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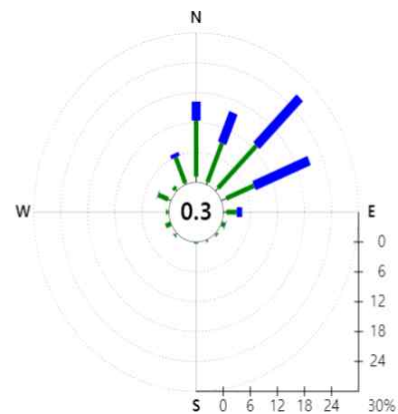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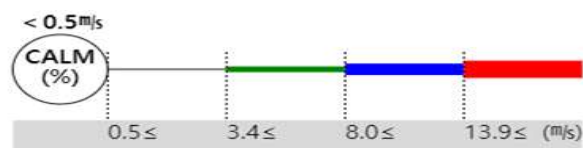


통영(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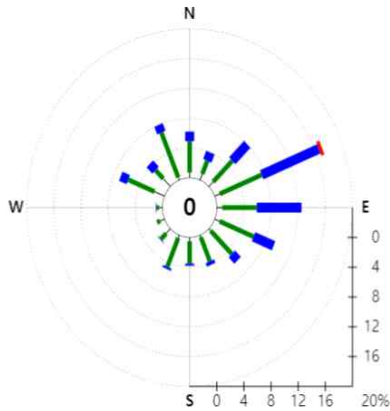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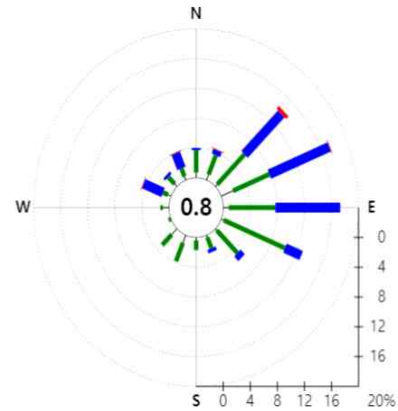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0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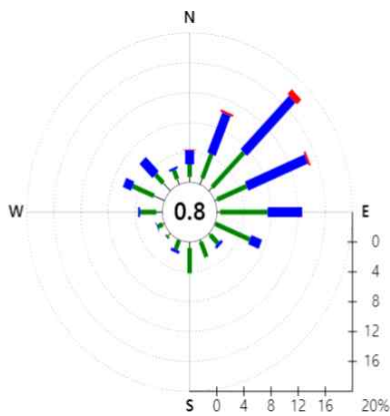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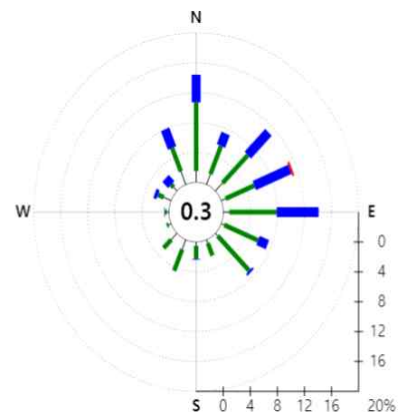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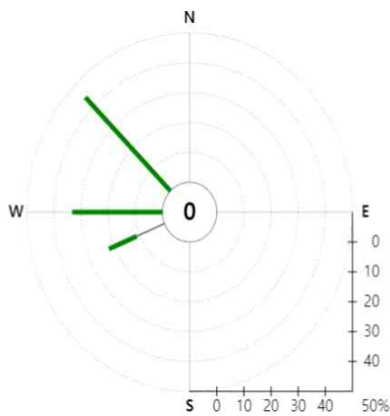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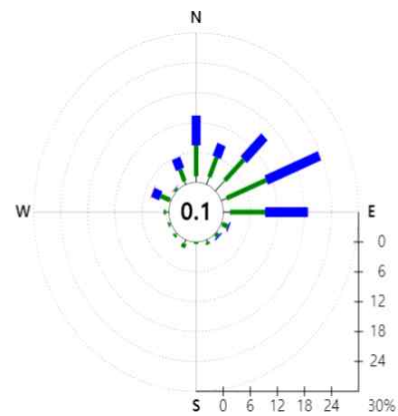
동해78(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울진(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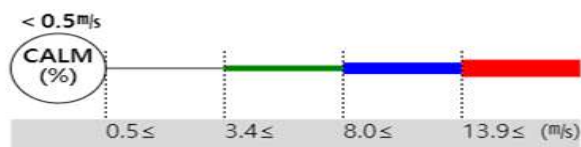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북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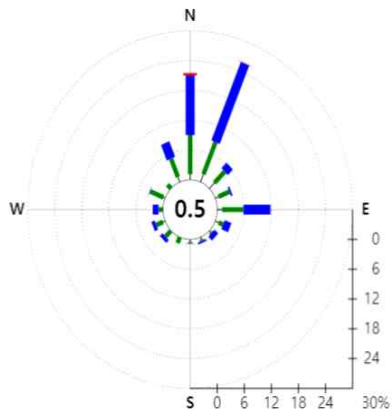


울산(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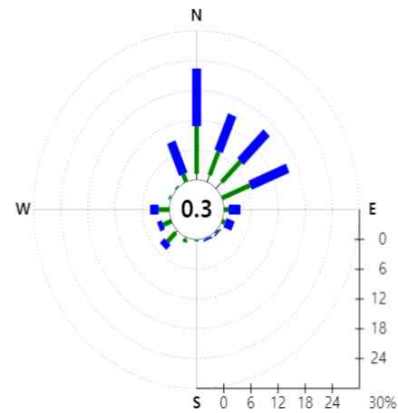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0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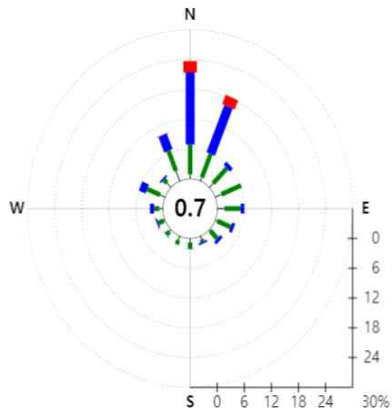
2025년 10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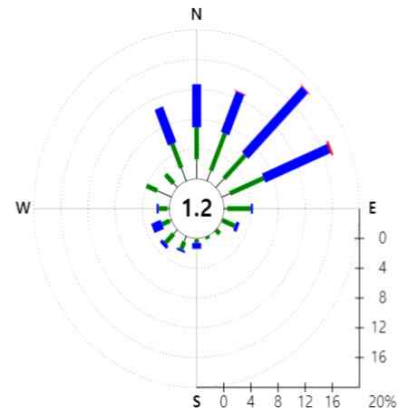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서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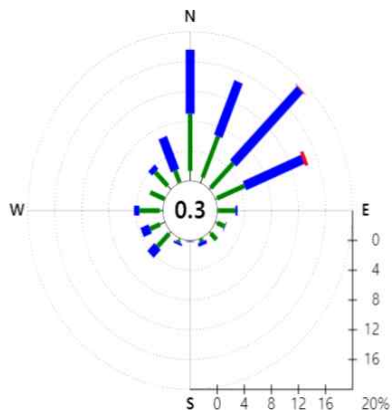
서귀포(제주도남동쪽안쪽면바다)



남해239(제주도남쪽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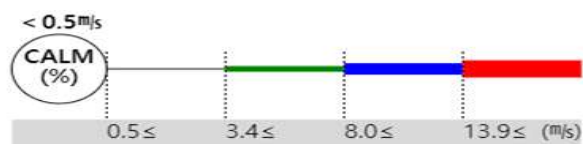


남해465(제주도남쪽바깥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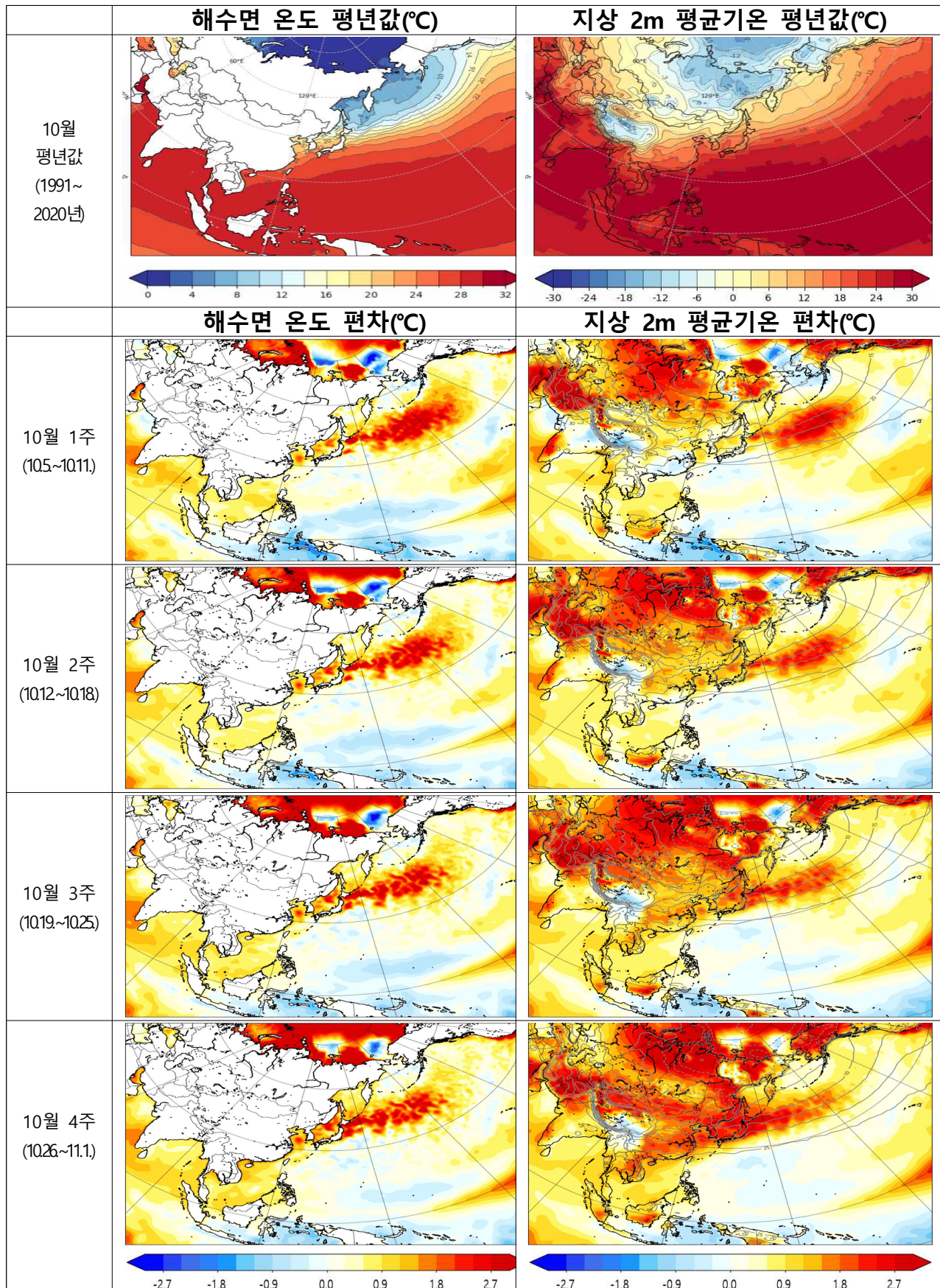
남해244(제주도남동쪽안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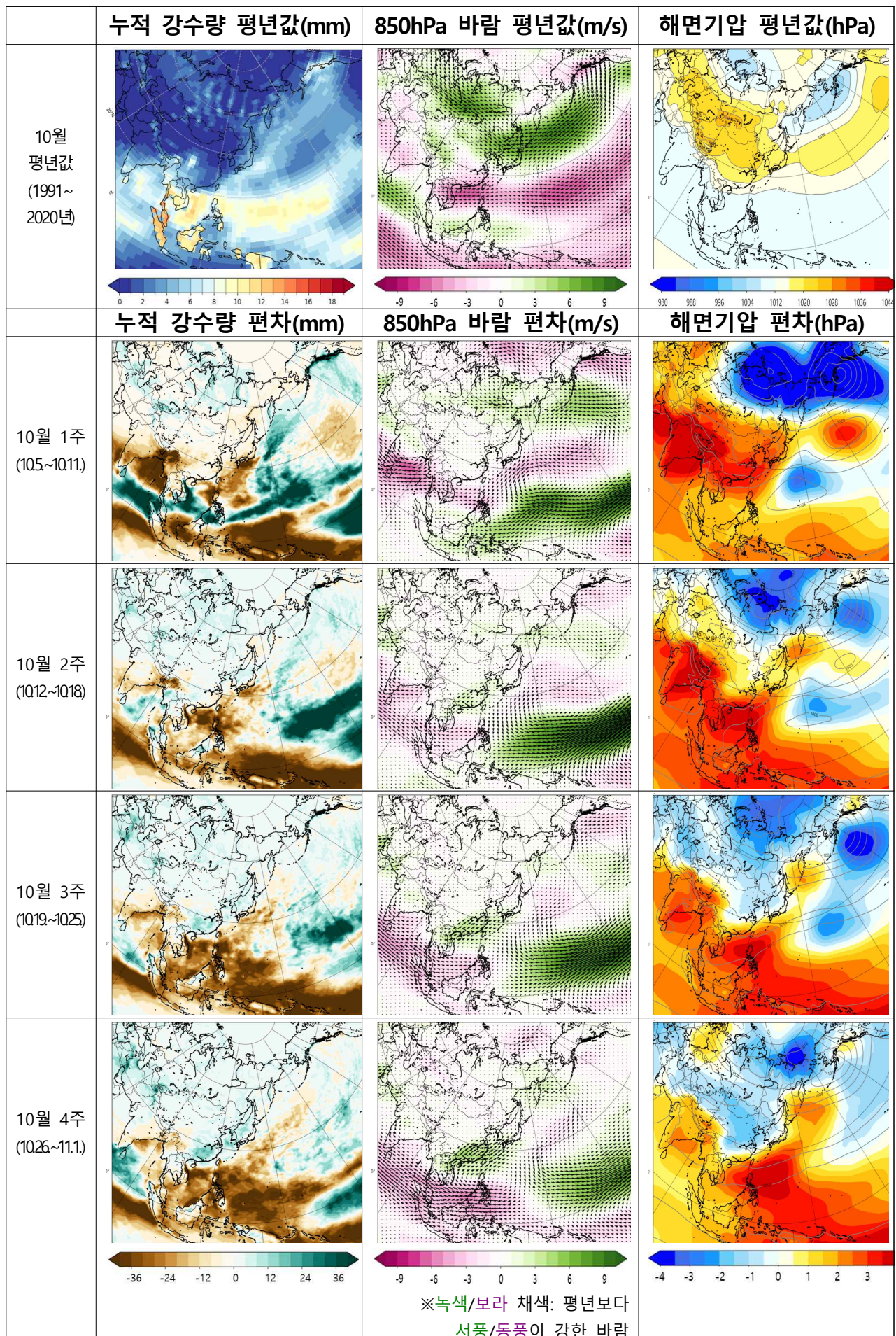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5년 10월, 바람장미) >



【부록 2】

GloSea6 모델 예측자료





【부록 3】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낚시어선 A호 · 모터보트 B호 충돌사건

조종 부적절, 경계 소홀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연안복합어업, 9.77톤, FRP B호: 모터보트, 3.81톤, FRP
	일시 장소	2021년 11월 5일 06시 39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66도, 거리 0.15해리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성산포항 성산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입항하던 중 성산포항을 출항하고 있던 B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B호는 조업지인 우도 인근 해상을 향해 성산포항을 출항하던 중, 약 150미터 거리에서 A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선수 앞쪽으로 지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 전방을 비스듬히 횡단하던 중 충돌하여 양 선박 선체가 일부 손상되고, B호 선원 3명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임
	날씨	날씨는 맑음, 바람은 북동풍 초속 약 2~4미터, 파고 약 0.1미터
원인	이 충돌사건 시정이 좋은 야간에 성산포항 항내를 좌현 통항하면서 출항 하던 B호가 입항하던 A호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여 발생한 것이나, A호가 B호의 오른쪽을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임	
교훈	- 모든 선박은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충돌에 임박하여 우현 변침을 하는 경우 오히려 충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후진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낚시어선 A호 모터보트 B호 북방파제 서방파제 06:36:28 06:38:28 06:39:28 충돌 06:38:28 오조항 06:36경 출항 (구)성산수고 부잔교 연안화물·여객부두 부두 끝단 성산부두 동방파제 낚시어선 A호·모터보트 B호 충돌 상황도	

2. 여객선 A호 · 준설선 B호 등 3척 충돌사건

안일한 생각, 조류 영향

사건개요	선박	A호: 여객선, 8,742톤, 강 B호: 펌프준설선, 2,790톤, 강	
	일시 장소	2018년 10월 8일 07시 20분경 (전라북도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304도 방향 약 0.1해리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항해하던 중이었고, B호는 A호의 입항 예정시각을 통보받고 여객터미널에서 0.1마일 떨어진 해역으로 피항하여 정박 중이었음 A호 선장은 B호의 정박위치와 금강하구둑 갑문개방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평상시와 같이 B호와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조선하다가 선체가 금강하구둑 방류수로 인한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서 B호를 피하지 못하여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A호 우현 중앙부와 B호 좌현 선수부가 충돌한 사건임	
	날씨	날씨는 맑음, 바람은 북동풍 초속 약 6~8미터, 파고 약 1미터	
원인		이 충돌사건은 금강하구둑 갑문 개방으로 유속이 증가한 상태에서 A호 선장이 예선을 1척만 사용하고 평상시와 같이 정박 중이던 B호와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조선하다가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면서 발생한 것임	
교훈		- 모든 항행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정박 중일지라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향, 발광 또는 탐조등 등에 의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부두 접안시 선박의 상태, 조류 영향, 주변 상황, 예선 지원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박선이 있는 경우 안전한 이안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여객선 A호 손상 사진	준설선 B호 및 부속선 전경